

서울대 독학반수 수기

by 솔샷

차례

I 반수

계기

반수 시작 전 베이스

생활

II 공부

학습 계획

슬럼프관리에 대해서

학원은 가고 싶는데 돈이 없었다. 어느새 연세가 쉰 중반을 넘긴 아버지께 월세 전부와 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받고 있던 불효자였기에 감히 학원에 가겠다고 할 수 없었다. 4월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해 8월 중순까지 공부할 돈을 벌었다. 월 30만원밖에 안되는 돈이었지만 모아둔 설날 용돈과 국가 장학금덕분에 그 정도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6월부터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주민센터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 컵라면이 주였다. 2학기 등록금이 아까워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적을 당했다. 종강 이후 아침 8~9시에 동대문도서관에 가 밤 10~11시쯤에 집에 돌아왔고 집에서는 보충학습을 했다. 자취방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항상 단어장과 태블릿을 놓지 않았고 한국사나 제2외국어 강의를 들었다. 편의점 음식과 값싼 도서관 식당 밥으로 끼니를 때워서인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이 가까워 올수록 몸이 약해졌고 감기도 자주 걸렸다. 스트레스성 위출혈이 와서 며칠을 끙끙 앓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고 수능 3주전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어릴 적부터 내 기억 속에 부모님들의 모습은 수년간 싸우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어졌었다.

수능 일주일전 걸린 감기가 수능 당일에는 꽤 괜찮아졌다.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어 전날 급하게 보온병과 전복죽을 샀다. 전복죽을 데워서 보온병에 넣다 손이 데여 국어시험 직전까지 따끔거렸지만 정작 시험 풀 땐 까맣게 잊고 미친 듯이 풀었던 것 같다.

성적 발표날, 재수생은 이메일로 성적이 오지만 굳이 아침 9시에 교육청으로 가서 봉투에 성적표를 받아왔다. 시험 중엔 시험에 모든 걸 쏟자는 생각으로 가채점조차 하지 않았기에 처음 보는 성적표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제일 먼저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다.

2월 초, 나는 서울대 인문, 고려대 경영, 상지대 한의예과에 모두 최종합격했다.

I 반수

계기

현역 때 저는 학교에서 가장 잘 밀어주는 학생이었고, 전 제가 수시로 sky급 대학에 쉽게 갈 수 있을거란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방 일반 사립고 학생이었기에 지역균형전형과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교 1등이었던 제 것이었거든요.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그 균형에 지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교 1, 2등이며 수시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야 열심히 준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생들과 경쟁하기에 제 노력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 같네요.

3년 내내 주제 파악 못하고 sky만 바라보다 수시전형에서 모두 광탈 당했고 가정형편에 맞춰 등록금이 싼 시립대에 정시 지원을 했고 최초 합격했습니다.

사실 꼭 반수하겠다! 라고 맘먹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3년 내내 바라보고있던 대학이 대학이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제 실제 실력대로 대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장래희망이 학벌을 많이 봄' + '내 능력이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 '대학생활이 생각보다 별거 없음' 이 세가지가 더 겹쳐 반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수 시작 전 베이스

- 중학교 때부터 공부 많이 함.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었음.
- 고등학교 3년간 전교 1등
- 3학년 1학기 때 까지 내신 성적 1.04~ 1.08
-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2등급 권 > 3학년 때 1.4~1.8 등급
- 현역 수능 성적

원점수 95 92 94 한국사 50 법정 47 베트남어 3등급
등급 12112 시립대 합격

지방 일반 사립고라서 저 내신 성적이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소수 몇 명 빼곤 공부를 정말 안했거든요. 이정도면 저희 학교에선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정말 공부 안하는 학교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게임 주말마다 2~3시간은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야자가 강제여서 빼먹고 피시방도 꽤 갔습니다. 물론 고3땐 많이 줄었습니다.

재능충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었고 단언컨대 제가 저희 학교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내신기간은 하루 4시간~ 4시간 반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수능 공부도 기출분석 원리에 맞춰서 제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평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붙잡아두는 공부를 강제하는 학교여서 공부하고자 하면 엄청난 시간을 공부에 쓸 수 있었고 제가 그 타입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치고도 야자하는 학교였고 고3은 한달에 한번 쉬었습니다...

생활

제 반수 생활은 크게 6월전 6월, 종강후인 7월 이후로 나뉩니다.

반수를 하려고 처음부터 완전히 맘먹은 것도 아니었고 반수를 한다고 해도 대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했기에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6월 전엔 많이 놀았습니다.** 학회에서 주 1회 모여서 발표를 하고 뒷풀이를 했는데 이 뒷풀이때 동기 선배들과 술마시며 노는 것이 제 대학교 삶의 낙이었습니다.

6월 전에는 반수 결정이 안나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했고 많이 하면 일주일에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주로 영어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듣고 교재따라 문장 독해, 문법, 강사님의 방법에 따라 기출분석을 했고 수학은 개념강의는 1.4배속으로 듣고 기출문제 풀이와 신승범 선생님 제작문항인 고쟁이를 풀며 문제푸는 감과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6월부터 반수를 결심했고, 그때부터 현역 때 하던 한국사가 필수로 바뀌며 노베이스로 사탐을 시작해야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강아닌 날은 생윤만 하루 3시간은 한 거 같습니다. **공간인 날은 하루 8~10시간 강의 있는 날은 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7월은 종강 후, 하루 8~10시간 정도 공부했고 주말에도 오전 4시간~6시간 정도하고 오후 부터는 알바를 가서 밤 11시 쯤에 집에 와서 뽀는게 일과였습니다. 국어에 2시간 30분 수학 4시간 영어 2시간 정도로 잡고 남는 시간에 사탐을 했습니다. 현역 때는 국어 별로 안했는데 6월 보고 엄청 충격 먹고 저렇게 잡았습니다. 전 대학교 생활 때문에 정식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7월에 제가 따로 풀어봤습니다.

8월 초~중순에 알바를 그만두고 순공 8시간~12시간 찍었습니다. 잠깐 화장실가는 시간 까지도 다 빼고 오직 공부시간으로만요. 아침 8~9시에 동대문도서관에 가 밤 10~11시쯤에 집에 돌아왔고 집에서 보충학습을 했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했고 라면이 익길 기다리거나 도서관 식당 밥이 나오는 시간에도 베트남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자취방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항상 단어장과 태블릿을 놓지 않았고 한국사나 제 2외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블릿때문에 유튜브 보느라 시간 날린 것만 빼도 14시간 찍었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1년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피쳐폰 + pmp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20대의 1년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냥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독하게 놓아 버리세요.

독학의 가장 위험한 점은 자기 자신의 공부를 강제해줄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말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절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삭파해버리세요. 좋은 강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재력이 없는 독재생이 이 정도도 포기못 한다면 절대로 재종반다니는 사람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II 공부

학습계획 (5월 1일 ~6평전까지)

학습계획은 물론 6평전과 6평이후 9평이후 성적과 그동안 쌓아온 공부량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수능 전 한달은 자신의 몸을 수능시간표에 적응시키는게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시기가 다가올 때 마다 오르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베이스에 따라서는 6월부터 해도 늦지 않지만 안전성을 위해 1학기부터 공부하신 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200일 안으로 접어든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가 끝나가는 중이거나 중반까지는 와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개념강의는 '개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배운 후 그와 관련한 기출을 푸는 강의를 말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수 반수생이라면 기본 베이스가 있으실테니 진도가 조금 밀려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전 생운을 6월부터 시작해 수능에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빡세고 밀도있게 했죠. 문제는 이 때문에 법과정치 공부에 조금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쉽게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탐 주말에 2~3시간 가량 공부해주세요. 여유 있으시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과목별 밸런스는 자신의 취약과목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국영수탐 3:3:3:1을 하든 비율을 바꾸든 해서 꼭 과목별 밸런스를 지키세요. 아무리 그 과목이 약해도 하루 전부를 한 과목에 쏟으시면 안됩니다. 시간배분하고 나니 사탐 국영수 시간이 너무 적어 사탐할 시간따위는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자신의 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몸에 큰 무리가 없다면 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동시간에 강의를 들으세요. 자는 시간도 지금이 한계고 이동시간도 짧다면 주말에 2~3시간은 국영수 포기하고 사탐들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동시간외에는 하루에 국영수하다가 질릴 때 쯤 사탐강의를 들었는데 기분전환되고 너무 국영수만 하다보니 사탐공부시간이 재밌기까지 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는 꾸준히 공부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여름방학 등 긴 휴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공부를 놓고 쉬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한번 쉬게되면 다시 공부 습관을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번 쉰 다음에도 쫓 쉬고 싶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 1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행사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꼭 자신이 정한 그날에만 휴식을 취하세요.**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나도 놀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의 목표가 그 친구들과 똑같은지,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전국의 다른 학생들도 모두 놀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일 것입니다.

또한 그 주에 목표 공부량을 못 채우셨으면 남은 공부를 꼭 휴일날 채워 주셔야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목표 공부량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목표 공부량을 못 채우게 되면 자괴감만 더 들 뿐입니다.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본 후

하루 평균 공부량을 계산한 다음 한 주마다 하루 30분~1시간 정도씩 늘려나가세요.

학습플래너는 해야할 것을 적지 말고 한 후에 적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괴감도 덜 들고 자신의 평소 공부량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늘려야하는지도 파악됩니다.

슬럼프관리

그 누구든 슬럼프는 옵니다.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에 쉽게 질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떨쳐내느냐입니다. '남들도 다 이시기엔 공부안하겠지' 같은 생각하시면 남들과 같은 성적, 남들보다 못한 성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같은 삶, 대학을 가기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있나요? 4월 말쯤에 재수, 반수생들이 풀리는 시기라고 흔히 얘기 하던가요? 여러분의 목표가 높다면 여러분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슬럼프는 흔히 시험 후나 휴일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장해드리는 공부법이 앞서 서술한

' 주 1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행사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꼭 자신이 정한 그날에만 휴식을 취하는 것'

입니다. 즉, 너무 지치치 않도록 몸에 휴식을 주되, 주변에 휩쓸리지 않을 환경을 스스로 강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저렇게 사람이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통해 공부를 강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학생들과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불공평하지만 돈 없으면 독하게 공부하셔야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현역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재수(N수), 반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않아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노력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은 꼭 노력과 성적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망쳐버릴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능은 노력을 안 한 사람보다 노력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립대에서 서울대를 반수로 가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공부 생활을 강제할 수도 없고 고효율의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 경우는 더욱 더요. 저는 아직도 서울대합격이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력이 제게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성취를 이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